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버락 후세인 오바마 주니어

2009년 미국은 영어 세 단어의 결합인 주문(呪文)과도 같은 'Yes, We Can(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에 환호하며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그 출발에 들떠 있다.

1월 20일 취임한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내놓은 일종의 집단 '주문'에는 이밖에도 'Change(변화, 또는 바꾸자 일까?)' 'We Are One(우리는 하나)' 등이 있으며 지금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를 여기서 구태여 '주문'이라 표현해 보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어쩌면 '주문'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고,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욕망이나 감성 또는 감정의 발달 그 모두가 언어의 도움을 받아 그 가지를 쳐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렬한 기대를 품게 하는 오바마의 이런 구호는 구호이기 이전에 '주문'에 가깝다.

덧붙인다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줄 아는, 유능한 부흥목사와도 같은 능란하고 현란한 웅변술이 그의 구호를 집단 '주문'으로 승격시켰을 수도 있다. 아니면 1930년대 경제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몰려 휘청거리는, 그래서 누구나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된 이 시대가 그의 정치적 구호를 '주문'으로 바꾸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낙관과 희망은 필수의 영양제이며,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 같은 '주문' 역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당장 오바마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 걸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변화'의 가능성 역시 아직 인종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미국인 스스로가 흑인을 그들의 대통령으로 뽑았고, 대다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환호에 휩싸인 그의 '주문'들이 언제까지 박수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가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그 지상 과제에 대해 취임 당일 뉴욕증시는 4%라는 큰 폭의 하락으로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었다.

현실은 기원과 기대만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며, 어떤 마술을 쓴다 해서 험악한 물길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다.

그가 내 놓은 핵심공약들 대부분도 적지 않은 걸림돌로 해서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미국 밖을 내다보아도 그야말로 웃을 일이 거의 없다. 이라크 철군, 진행 중이나 마찬가지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여기에 북한의 핵도 빠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 인내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할 것이지만 이럴 경우 국민들의 인내심은 얇아 곧 한계에 이른다. 그 한계는 'Yes, We Can'의 주력(呪力)이 한꺼번에 빠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 해서 그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싶지 않으며 이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풀 네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 주니어'다. '버락'은 케냐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로 '신의 축복을 받은'이라는 뜻이라 한다. 중간 이름 '후세인'은 이슬람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대표적 이름 가운데 하나다. 그의 이름은 이처럼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만큼이나 '후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적지 않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기독교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그는 기독교인이며 또한 미국의 전통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을 받아들인 미국사회는 종교적 분포로 보아서도 기독교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집권 시기 안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일신교 형제 종교들의 지겹고 터무니없는 갈등으로 해서 지구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동서양 종교는 서로의 거울이 돼 마주 봄으로써 스스로를 좀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던 가톨릭 신부 토머스 머튼의 한 마디를 함께 덧붙이면서….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표준 '금강경' 발간의 의미

조계종이 <표준 금강경>을 펴냈다. 한문과 한글이 함께 편집된 독송용과 주석본 두 권이 우리시대 <금강경>의 표준을 이룬 것이다. 1월 20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정 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2000만 종도들이 이 표준본을 지남으로 삼아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지금까지 발간된 <금강경> 가운데 가장 완벽한 주석본임을 강조했고 교육원장 청화 스님도 종단의 정체성을 밝히고 종풍을 드날리는 계기를 삼게 됐다고 말했다.

<금강경>은 역대로 선과 교를 초월해 연구되고 읽혀 온 대표적인 경전이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표준본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 스님과 학자들이 각자의 견해대로 해석해 온 것을 종합해 우리 시대에 가장 접합되는 견해를 세웠다는 의미다. 경전이란 시대를 따라 해석 하는 바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흐름을 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강조한 <금강경>이 종단의 원력으로 제작된 것은 교학적 연구와 간경수행 독송기도 등을 일관된 견해로 이끌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표준'이라는 다소 제한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금강경의 정신'에 부합되느냐는 반문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반문이야말로 '표준 금강경'의 가치를 시대와 풍속에 따라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당대의 이름 높은 학승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룬 이 불사가 우리시대의 정신을 올곧게 이끌어 가는 힘이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

신도수 뻥튀기 이제 그만

도대체 한국의 불자는 몇 명이나 될까? 발표되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다.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수치가 발표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는 불자의 수가 무려 3985만명이나 된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종교인구 수를 발표하고 있어 어이가 없다. 각각의 종파들이 설문에 응하면서 신도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 얘기다.

불교의 경우 최근 10년 만에 100여 개의 종단이 설립됐고 주로 이들 종단이 신도수를 높게 응답함으로써 전체 인구수에 육박하는 불자의 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신뢰성 없는 수치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발표돼 왔다. 그러나 불자의 수를 높게 발표하는 것이 자랑은 아닐 것이다. 믿어 줄 사람도 없지만 당장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사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같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대하는 사람들은 종단 안을 향해서 '과연 신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교육과 신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신도수를 눈짐작으로 발표하는가? 하는 의심도 받게 된다. 뻥튀기 된 신도 수는 종단의 행정 시스템과 정신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신도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통계자료에 관례적으로 뻥튀기를 하는 속사정을 묵인한 채 '2000만 불자'를 외치는 허망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망신스럽다.

"행복한 보살 삶 살아가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100 참회와 감사로 회향합니다

100회를 함께 회향하면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들을 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99회를 부처님전에 마지 올리는 마음으로 바친다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알려주신 스님의 회향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성삼보에 귀의합니다.

100회 회향하며 108번의 깊은 참회 올립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100회 회향하며 108번의 깊은 감사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한마음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연되신 분들의 모든 업장이 녹고 밝은 부처님 마음으로 피어나시어 행복한 보살의 삶을 살아가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무 자성본래불.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